

왕년 음악인들... '리듬 공양' 90여 차례 일산노인복지회관 '7인의 실버밴드'

평균 연령 70세의 실버밴드 일산노인 복지회관 호수문화대학에 다니는 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년의 삶을 이웃과 함께 리듬에 실어 올리는 음악 동호회다.

◇ 8일 열린 연주회에서 열 연 중인 실버밴드 퍼스트 기타 지연영 할머니(왼쪽부터 첫 번째), 트럼펫 박정근(두 번째) 할아버지 등이 합주곡을 연주하고 있다.
사진=임민수 기자

전직 음악교사인 최천규(77) 우서규(67) 할아버지, 미 8군에서 악단을 했던 조선장(76) 할아버지, 군악대 출신의 송금학(61) 박정근(76) 할아버지, 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정인섭(80) 할아버지, 한국 최초의 여성악단 창단멤버인 지연영(67) 할머니, 모두들 한 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화려했던 머리칼은 그 때의 화려함과 다른 원숙함으로 빛난다.

동호회원을 의기투합 창단

8월 오전 경기도 고양시 문예회관, 그동안 두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 제 1회 '호수실버밴드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날 실버밴드의 공연은 일산노인 종합복지회관 호수문화대학 학생회 단체인 '실버밴드'가 독거노인과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준비한 것이다. 연주회의 시작은 왕년의 꽃 미남이 박정근 할아버지의 트럼펫 독주곡 '밤 하늘의 불무스', '오빠'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환호 적당히 나이가 쉬이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오렌지 빛 네타이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일어나 어깨춤을 춘다. 미키가수 지연영 할머니의 기타 독주도 보통 실력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이 준비해 온 '지연영 언니' '실버밴드' 능력을 보여 주세요' '노킵 락! 실버밴드'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한다. 주연공고 1학년 강현준 군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음악회라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실력이 보통 아니다'라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않는다.

구경 왔던 박은도(67) 일산구 할아버지는 "실버밴드 단원들은 이제 꽤 유명인사"라며 "젊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이 얼마나 못한 사고인지를 보여준다"며 부듯해 한다. 실버밴드가 발족한 것은 지난해 5월, 호수문화대학을 다니던 실버밴드 회원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의

"이젠 꽤 유명인사"...부듯
기루웠다. 이 때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모여 호흡을 맞추어 왔다. 실버밴드가 처음 공연한 것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박애원 환자 위문 공연. 실버밴드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장 장애인복지관, 일산구청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 SBS 학교문화 50년전 축하공연 등 90여 차례나 무대에 올랐다. 매달 두차례 이상의 공연을 해온 셈이다. "뜻"만 있으면 "나이"는 다음 문제다.
강유신 기자
shammok@buddhapia.com

"포교사로서 사명감... 날마다 좋은 날" 사찰안내 자원봉사로 새 삶 이엽기 씨

군과 대기업에서 30여년간 생활하다 3년전 퇴직한 이엽기(61)씨, 사찰 가이드로 전국의 산사를 누비느라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바쁘다. 특히 주말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3팀에 소속돼 전등사에서 사찰안내 자원봉사를 한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포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 보니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이엽기 씨의 이런 활동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일이다. 78년부터 90년까지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불청)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전등사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찰 내역을 설명하는 이엽기 씨.

보람 일구는 멋진 노년들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이 코치(사진 왼쪽)는 오늘도 연습장에서 땀을 흘린다.

84년 이후 매일 아침 108배
경기를 앞 둔 울산 모비스 오토몬스 농구단의 연습장.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 사이에 반백의 노인이 우뚝 서 있다. "그게 아니지, 여기서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상대편 선수를 제치고 슛을 해야해. 자, 이렇게 말아." 작전을 지시하고 슛을 지도하는 이 사람은 바로 모비스 오토몬스의 이우재 코치다. 1931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올해 일흔 둘이다.
농구는 젊은 운동이다. 경기장을 뛰는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를 주도하는 감독도 대부분 현장에서 갓 물러난 젊은 감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프로 농구팀의 코치가 일흔을 훌쩍 넘긴 노인이라니. 그리고 그 노인이 지금 농구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니. 보통의 노인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그의 삶은 한마디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다.
그 나이에 현역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비결이 궁금했다.
"부처님께 농구 인생 마감 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늙은이에 게 이런 복이 주어지네요." 1984년 일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코치의 부처님과의 인연은 이렇다. 당시 일본의 한 여고 농구팀을 맡고 있었는데, 어머니

석과 전략을 정밀해 농구계에서는 열성파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한 것 만큼 언젠가는 받게 되잖아. 노련한 것 만큼, 혹은 농구에 대해 연구한 것 만큼 언젠가는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매 경기를 마칠때 마다 철저한 반성과 분석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남들 보다 한결 여유있고, 편안한 선수 지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다.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남기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서툰지만 제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기며 준비중인 <농구 용어집>과 <농구 작전집> 출판도 후배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년 시즌 시작 전에 출판 작업을 마무리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글을 쓰는 일도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선수 지도에, 경기분석에, 책 집필까지, 20대의 열정이 부럽지 않은 이 코치에게 '나이'는 삶에 대한 열정과 비례해 올라가는 한낱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코치는 말한다. "건강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생 농구장에서 살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매일 아침 108배 기도에도 청소년 농구 지도를 발원한답니다. 후후 후, 너무 욕심이 과한가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쓰고 있지요." 그의 이력은 남다르다. 65년부터 78년까지는 군에서 생활하다 중령으로 예편을 했고, 79년부터는 상임사에 들어가 교육과장, 총무이사, 연수원장을 거쳐 영남 공청장을 끝으로 88년에 은퇴했다. 이후 의류회사인 논노에서 근무하다 부도로 그만두고, 잠시 여행사 영업 사장을 하면서 자연스레 여행업에 발을 들인 그는 청년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이때부터 동국대 황수영 박사, 간송미술관 최원수 실장 등 문화재의 대가들을 두루 찾아 다니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또 여행사의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찰 안내

"천년의 문화와 매일 대화"
를 맡은 가이드가 안내판에 나온 간단한 설명만 하고 그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그 다음날 여행사 사장님 찾아가 나를 한 번 사찰 가이드로 써 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2000년부터 3년째 답사단체에서 프리랜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인연담이다. 사찰 여행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몇 년전만 해도 한 잔 하고 올라와 경내에서 떠돌고 노래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이들이 없다. 편지를 배우고 배우며 재충전을 하려고 찾아오는 이가 적지 않아 큰 보람을 느낀다. "빛나는 사회적 성공이나 화려한 명성을 남기는 일은 아니지만, 내 인의 행복을 찾으며 천년의 문화와 매일 대화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 여생을 사찰에서 관광객들을 맞으며 보낼 생각입니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www.jawonet.co.kr

희담석 稀潭石

“지병에서 벗어나 편안한 수면을 원하십니까?”

희담석 돌침대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석 중에서도 원석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稀潭石

“정신집중이 잘 되는 편안한 방식을 원하십니까?”

희담 휴대용 방식은 수험생, 스님, 직장인, 운전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분에게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제고,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품문의

(02)3476-2335(대)

011-9230-2335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금곡동) 502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